

# 근대전환기 新·舊 文化의 衝突과 受容에 관한 연구\*

- 목포지역 金星峯와 金祐鎭의 경우 -

장선희\*\*

## 〈차례〉

- I. 머리말
- II. 김성규의 문화적 충돌과 수용
  - 1. 김성규의 생애
  - 2. 김성규의 봉건성과 근대성
- III. 김우진의 문화적 충돌과 수용
  - 1. 김우진의 생애
  - 2. 김우진의 근대성과 봉건성
- IV. 신·구 문화의 충돌과 수용 양상
- V. 맺음말

## I. 머리말

인간의 삶은 판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지며 선택에는 필연적으로 결과가 수반된다. 선택의 결단에는 선택해야 할 상황과 문제에 대한 선택자의 인식과 경험, 가치관 등이 어우러져 판단을 하게 된다. 凡人들의 일상적인 선택에도 이유와 결과가 있게 마련이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급격한 전환기 이거나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의 선택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결

\* 2004년도 광주보건대학 연구비 수혜논문임.

\*\* 광주보건대학

과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1860년대부터 1945년까지를 우리나라의 근대로 시대 구분하고 이 시기를 舊時代와 新時代가 교체되는 轉換期라고 규정하였다. 전환기에는 그 시대와 사회를 유지하여 왔던 舊문화와 새롭게 신생하여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新문화가 치열한 갈등과 충돌, 조율과 융합하는 과정이 공존한다. 특히, 사회 집단의 최소단위이자 일반적 규범과 개별적 질서로 유지되고 있는 가정에서 드러나는 新·舊 문화의 충돌은 가장 첨예하고 치열하게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전환기 新·舊 문화의 충돌과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로 목포 지역의 金星圭(1863~1935)와 金祐鎭(1897~1926)의 갈등과 충돌, 수용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김성규는 김우진의 아버지로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에 걸쳐 살았던 근대적 봉건인이며, 김우진은 대한제국기와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일본에 유학하여 신문화에 선구적으로 접촉하였던 봉건적 근대인이었다.

## II. 김성규의 문화적 충돌과 수용

### 1. 김성규의 생애

#### 1) 김성규의 修學과 出仕

金星圭(1863~1935, 號: 雲賓, 草亭, 字: 寶衡)<sup>1)</sup>는 조선 고종이 즉위하기 일년 전인 철종 14년(1863년)에 태어나 조선왕조에서 교육을 받고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벼슬하였으며 결국에는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 시대까

1)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3, 『한국역대문집총서』, 1778~1780, 경인문화사: 김성규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草亭先生文集』 2에 있는 「장성군수이력서」 359쪽, 『草亭先生文集』 3, 「從宦錄」, 394~401쪽, 「履歷書」, 416~420쪽, 「蔭仕」, 421쪽 등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지 살면서 신·구 시대의 교체와 갈등을 몸으로 체험하였다. 그는 충청북도 延豊縣 衙舍에서 태어나서 慶北 聞慶에서 성장하였다. 김성규는 부친인 磊棲 金炳冕이 56세 때에 三娶妻에게서 얻은 次男이었는데 初娶妻의 生인 長男 豊均과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었거나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sup>2)</sup>

김성규는 어려서부터 神童으로 이름이 났는데, 6세 무렵부터 모친에게서 千字文과 童蒙先習을, 15세 때에는 부친으로부터 孟子와 論語를 배웠다. 김성규의 학문적 경향은 아버지인 김병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김병욱은 당시 세력을 장악하고 있던 안동 김씨의 族戚이었지만 처세에 서투려 50세가 넘어서야 겨우 微官末職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김성규를 낳을 즈음에는 삼남지방에 일어났던 민란 때문에 청렴결백한 관리를 찾았던 까닭으로 연풍현감으로 임명되었다. 김병욱은 社會改革을 위한 큰 抱負를 가지고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점진적인 社會改革과 外侵防禦를 目標로 하는’<sup>3)</sup> 내용을 담은 太平五策을 두 차례나 상소하기도 하였으나 容納되지 못하고 生을 마쳤다.<sup>4)</sup>

부친으로부터 교육받던 김성규는 17세(1879년) 되던 때부터는 서울에 유학하여 안동 김씨 문중인 金昇圭家에 머물면서 內治, 外交, 用兵, 理財의 학문을 新舊의 書籍을 통하여 열심히 공부하였으며 20세 이후에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특히 김성규는 算術에 힘써 14살 때부터 安東 사람 權載鐸에게서 算術을 배웠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산술교사인 李尙嫻, 方漢初에게서 算術句股學을 배웠으며, 美國人 魯越로부터 八線三要之法을 배웠다. 또한 觀象監에 나아가 數理와 曆象의 책을 研鑽하여 미

2)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2, 先考縣監府君墓誌, 18~20쪽.

\_\_\_\_\_,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6쪽: …… 吾以晚生獨子九死餘生 …… 吾以孤子之身 ……

3) 金容燮, 「光武量田의 思想基盤-量務監理 金星圭의 社會經濟論」, 『아세아연구』 통권 48호, 1972.12, 188쪽.

4)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2, 先考縣監府君墓表, 32쪽: …… 二疎五策之外如○舍諸篇及汚 論復四郡議劈破門閥等所著皆足以興周祚宋而不幸當垂亡之世屈於下僚抱策未施至於易簣之時猶屢發淪喪之歎此可見民國一念至○不已而不肖所觀記不能忘者也 ……

국인 魯越이나 일본인 堀本禮造와 더불어 ‘互相問難’ 할 정도까지 되었으며, 算術에서는 나라 전체를 통틀어 제일이라고 일컬어졌다.<sup>5)</sup>

김성규의 관직생활은 25세(1887년)부터 43세(1905년)까지의 18년간이다.<sup>6)</sup> 처음 그는 礦務局主事로 시작하여 같은 해에 親軍右營文案, 駐劄英德俄義法全權公使館書記官으로 임명받아 유럽을 순방하기 위해 홍콩으로 건너갔으나 청나라 조정의 견제로 성사되지 못하였고, 이듬해에 모친상으로 환국하였다. 32세(1894년)에 高敞縣監兼 全羅道慰撫使從事官이 되었으며 35세(1897년)에 長城郡守로 임명되었다. 37세(1899년) 全羅南道量務監理가 되었으며 41세(1903년) 務安監理兼 務安港裁判所判事로 임명받았다가 신병으로 사면하였다. 42세(1904년)에 忠淸道巡察使로 임명받았다가 江原道巡察使를 제수받았고 43세(1905년)에 致仕하였다.

김성규는 일찍부터 量田均稅之志를 품고 量政備考를 集成하기도 하였고 반계 유형원의 礪溪隨錄과 다산 정약용의 與猶堂集 등의 책을 손수 베껴 공부하였다.<sup>7)</sup> 또 사방으로 유학하면서 국가의 정세가 岌嶮함을 보고는 慨然히 經世之志를 품었으며 匡濟之學으로 英名하였고 1888년 외국에 있으면서 國事의 必去를 洞見하였다.<sup>8)</sup> 김성규는 처음에는 國事의 必去를 해결하기 위해 撥亂反正의 뜻까지도 가지고 있었으며 갑오경장의 초기에 바야흐로 혁신의 정치가 행해지려 하자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자기의 능력을 시험해 보려고도 하였다. 또한 量務監理의 制度가 마련되어 맨 먼

5)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41쪽: …… 以算術推爲通國第一 ……

6)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2, 「草亭居士墓自誌」, 21~25쪽, 「長城郡守履歷書」, 359~362쪽, 『草亭先生文集』 3, 「從宦錄」 394~401쪽, 「履歷書」, 416~420쪽, 「蔭仕」, 421쪽.

7)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62쪽: …… 家君自弱冠遊學時夙抱量田均稅之志 有量政備考集爲成書者 又有礪溪柳公礪溪隨錄茶山丁公與猶堂集等書皆親手謄寫者至今保存於家藏而 使家君齋志未就不辰之歎固如是矣 ……

8)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53쪽: …… 家君自少孺染於家庭聞見 已有遠大之圖 遊學四方 專心於有用之學 必欲展其素志矣 及至戊子在外國時 洞見國事之必去 ……; 「蔭仕」, 423쪽: …… 因親命遊學四方見國勢岌嶮 慨然有經世之志 專心於匡濟之學英名 ……; 373쪽: …… 陰曆二月 家君南歸渡銅雀津望三角山而四拜以表永辭之意自此家君更不入京城.

저 選拔되었을 때 김성규는 ‘다만 一個 官吏로서 이 事業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社會改革에 관한 그 自身の 平生의 信念을 一部分이나마 이 事業을 통해서 實現하고, 日本帝國主義의 侵略으로부터 國家와 民族을 守護한다는 確固한 信念에서 臨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平生의 學問은 이 事業을 위해서 準備되었다고 하리만큼 이 事業과 그의 思想은 密着되어 있었다.’<sup>9)</sup> 그리하여 長城郡守와 全羅南道 量務監理를 兼職하면서 京衙門 議案 勅令案 及行量條例 등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으며 제1회 각 도의 감리를 선임할 때도 그가 살펴 뽑았다.<sup>10)</sup>

그러나 그는 세상이 이미 자기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헤아리고, 통분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세상에 나갈 뜻이 없어졌다. 그리하여 갑오정변 이후로는 중앙의 요직을 사절하고 親墓를 移葬하여 守墓耕田하면서 畎畝之計할 것을 계획하였고 43세(1905년)에 드디어 永辭之意를 表하고는 南歸하여 다시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sup>11)</sup>

## 2) 김성규의 호남에서의 활동과 생활태도

경상북도 문경이 고향이자 성장지였던 김성규가 호남과 인연을 맺기는 32세(1894년)때부터였다. 이 해 3월에 호남에는 큰 民衆騷擾가 있었는데 김성규는 親軍武南營從事官으로 全州에서 거하고 있다가 9월에 고창현감으로 천거되었다. 이듬 해에 김성규는 가족들을 高敞縣官舍로 이주케 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문경의 친척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이 곳 전라도

9) 金容燮, 앞의 논문, 180쪽.

10)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53쪽: …… 雖有撥亂反正之志而 ……; 359쪽: …… 值甲午更張之初方行革新之政 家君以平日廊廟之學略試牛刀之用 …… 361쪽: …… 其在量務監理也京衙門議案 勅令案及行量條例皆出家君之手第一回各道監理選任時皆由家君之鑑舉 ……

11)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53쪽: …… 甲午政變謝絕權要之京官低回下邑 專意於親墓移葬 丙申葬親以後 仍卽爲守墓耕田沒身畎畝之計 今讀其全集中發於詩文者而 跡其行事則其於國有痛恨鬱悒之懷 於家有冤苦忉忉之情 視仕宦如草芥 表獨立於世外可以知也 自料時勢之不可行繼遭至痛之巨創 益無當世之念 ……

로의 이주를 결심하였던 것 같다.

김성규는 부친인 김병욱이 56세에 얻은 차남이었으므로 장남과는 나이 차이가 많았으며 김성규의 모친은 김병욱의 三娶妻였다. 그러므로 김성규는 조카와 손자뻘들인 장손가와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해야 하였으며 장손가로부터 많은 수모와 차별을 받았던 것 같다. 특히 김성규가 벼슬에 나가면서 경제적인 부를 가지게 되자 장손가에서는 끊임없이 지원과 도움을 요구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때, 김성규는 전라도에 부임하면서 고향과 많이 떨어진 이 곳에서 자립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김성규는 34세(1896년) 때에 자신의 생모였던 順興 安氏의 묘를 長城郡 北三面으로 移葬하였다. 35세(1897년)에 長城郡守로 임명되었으며 묘아래 草心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가족들을 이주시키면서 장성은 김성규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

김성규는 41세(1903년) 3월에 務安監理兼 務安港裁判所 判事로 임명받아 목포와 인연을 맺게 되지만 12월에 신병을 이유로 사직하고 장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44세(1906년)되던 가을 밤에 도적 수습 인이 김성규의 집에 난입하자 김성규는 單身으로 목포로 피신하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45세(1907년)에는 어린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구들과 학생들을 이끌고 목포로 移居하였으며 이로부터 11여년을 목포에 머물렀다. 그 후 55세(1917년)에 김성규는 장성으로 돌아가 環亭地 10數畝를 개척하고 詩經의 陟配望母의 句名을 따서 配園이라 하였다. 그리고 주변에 종류대로 나무와 꽃을 옮겨 심고 配園을 조성하고 於茅茨水竹之間에서 布衣菜飯하고 蕭然 讀書하면서 守墓하고자 하였던 평소의 뜻을 이루었다.

17세부터 서울에 유학하여 학문에 전념하던 김성규는 22세(1884년)되던 해에 중병에 걸려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다.<sup>12)</sup> 김성규의 병은 癩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보는 자마다 廢人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조보리 밥에 흰 소금물만 먹고 房慾을 斷去해야 한다는 의원의 처방에 따라 김성규는 五戒書를 지어 붙여놓고 2년여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아 병의 차도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병의 발병으로 3년여를 투병하다가 25세

12)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42쪽, 「孝行」 421쪽, 「蔭仕」 423쪽,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가 되어서야 기력을 소생하여 관직에 나아갔다.<sup>13)</sup> 이후에도 김성규는 일생 동안 여러 차례 병마에 시달렸으며 그 때마다 초인적인 절제와 인내력으로 이겨 내었으며 이러한 절제와 강인한 의지는 평생을 통하여 그의 생활에서 일관되게 실천되었다.

김성규는 철저하게 근검절약하며 노동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김우진이 본 김성규의 居家之節은 첫째 노동을 중시하고 예법을 존중할 것, 둘째 造次間에도 반드시 학문을 할 것, 셋째 힘써 규칙을 행할 것, 넷째 근로함으로 마음에 기쁨을 삼을 것, 다섯째 절약하고 근검함을 실행할 것 등이었다.<sup>14)</sup> 이러한 규칙은 김성규 자신으로부터 가족과 친지,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용되었다. 특히 김성규는 43세(1905년)때,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와 南歸한 이후, 仕宦家로써의 舊風을 一掃하고 부녀들은 밭일과 부엌일을 직접 하였으며, 남자들은 각각 力學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했다. 10살이 안된 김우진과 그의 동생들도 겨울 추운 때면 손등이 거북등처럼 갈라져 피가 흐르며 딱지가 앉을 정도였다. 그러나 김성규는 “너희들의 수고가 너희들의 장래의 복이 된다.”고 독려했고 자식들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sup>15)</sup> 그는 매양 자식들을 훈계할 때에 “節儉하면 재물이 없지만 있는 것과 같고, 濫用하면 재물이 있지만 없는 것과 같으며, 儉約하면 향아리나 병 속의 곡식으로 창고에 있는 것을 이기는 것이 되고, 사치하면

13)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42쪽: 得難醫之疾 十月與病歸鄉 病證重大 見者謂之廢人 我祖考 祖妣大憂懼 醫言病人宜食粟麥飯白鹽水斷去房慾 若不守戒則 病不可爲 家君 乃自作五戒書 付之座右 每遇慾念之發 輒竦身危坐閉目而朗誦 便覺冰雪之洒(音銑) 然在背一切邪欲卽地消滅二個年間 終不犯戒 茲將其戒書謹錄于左 五戒書 一爾欲入房乎爾思爾父爾母, 二爾欲食米飯乎爾思爾父爾母, 三爾欲食醬乎 爾思爾父爾母, 四爾欲食魚肉乎爾思爾父爾母, 五爾欲飲酒乎爾思爾父爾母 ……

14)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73~374쪽: …… 不肖竊伏見家君居家之節 一曰動遵禮法也 二曰造次必由學問也 三曰勵行規則也 四曰心悅於勤勞也 五曰實行節儉也 ……

15)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74쪽: …… 乙巳春以後一掃仕宦家舊風 婦女之鋤田執爨 男子之各執役務互相樂赴 不肖與弟妹 每當冬月寒天手背莫不龜坼血流通成痂 蓋因未明前洗滌內外堂室也 至於除廁掃庭點燈煖埃等事亦與諸學生分番擔任 較諸農村細民家子女勞苦 實爲倍蓰 家君每語不肖等曰爾果勞乎吾爲爾輩作將來之福 不肖等亦自不知其爲苦焉 ……

재물이 구리 광산과 금 광산 같아도 끝내는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라고 경계하였다.<sup>16)</sup> 이외에도 김성규는 일상의 생활을 규칙과 규율을 정하여 자신과 자식들로 하여금 철저히 지키도록 훈육하였다.<sup>17)</sup> 이러한 김성규의 성격과 생활 태도는 어렵게 일군 자신의 가문과 후손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불화와 소외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 2. 김성규의 봉건성과 근대성

### 1) 김성규의 봉건성

김성규의 학문적 기반은 儒學이었다. 김성규는 조선조를 지탱하여 온 유학의 부패와 허실로 인해 망국에 이름을 보기도 새로운 사상과 문화가 유학을 대신하여 교체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그는 나라를 구하는 최선의 방법은 변질되고 부패한 유학을 새롭게 改新하여 舊시대의 문화와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무질서하게 들어오는 서구의 문물에 맞서기 위해서는 더욱 유학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성규는 집안 사람들에게 동양의 聖人인 유교의 宗旨는 斯民을 구제하고 萬世를 편안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나는 이때에 大儒가 출현하여 이 동양 민족을 구하고 세계 인류를 함께 구하기를 원한다. 나는 우리 자손들이 세세토록 유교의 진리를 구득하여 大儒者가 되기를 소원한다”<sup>18)</sup>고 말하여 유교의 진리로써 동양 민족과 세계 인류를 구하여

16)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78쪽: …… 又戒曰節儉則無財而有財 濫用則有財而無財 儉約而生財瓶罌之粟勝於倉箱奢華而生財銅山金穴終成泡花 ……

17)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三, 230~276쪽. 「遺言書」 1~5호, 「祥星合名會社 定款」, 「草亭金氏宗中財團報恩社 定款」, 『草亭先生文集』 2, 卷之五, 21~25쪽. 「草亭居士墓自誌」, 卷之六, 159쪽. 「求婚標準書」, 160쪽, 「夏期放學中學生習業規則- 普通學校 一二三四學年生」, 162~163쪽, 「約定書」.

18)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75쪽: …… 家君嘗語人曰東洋聖

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김성규가 신봉했던 유교의 기본질서는 수직적인 인간관계였다. 인간관계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父子간의 관계였으며, 그 다음이 君臣간의 관계였다. 그러므로 孝와 忠은 김성규의 삶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으며 그는 이 忠孝의 실천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김성규의 일생의 과업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는 忠이었다. 김성규는 당시 나라의 政綱의 무너짐이 극에 달함을 보고 致仕에의 꿈을 일찍 접었다. 그리하여 정성군수 이후의 관직들은 김성규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마다 부름을 받아 나아간 것이었다. 37세(1899년)에 국가에 田政의 대문란함이 있자 김성규의 鍊達함을 아는 집정자들이 諮問을 구하였고, 김성규도 일찍부터 田制改正의 뜻이 있었으므로 흔쾌히 응하였다. 그리하여 그 때의 勅令, 起案과 만반의 施設들이 모두 김성규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41세(1903년) 때에는 목포항의 노동자들이 일본영사를 끼고 본국정부에 반항하는 개항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한 정부에서는 김성규를 監理로 삼아 해결하도록 하였다. 김성규는 항구에 부임하여 일본 영사 若松과 더불어 담판을 짓고 일본과 결탁한 탐관오리들을 축출시킬 것을 論한 이후에 물러나 장성으로 돌아갔다. 42세(1902년) 때에는 일·노 전쟁 중이어서 國勢가 대단히 위태롭고 民心은 물끓듯 소란하여 朝夕을 보장할 수 없었다. 정부에서는 순찰사 제도를 다시 만들어 激濁한 官吏들을 揚淸하고 民心을 鎮撫시키는 중대한 권한을 위임시키면서 김성규를 충청남북도의 순찰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김성규가 부임하지 않자 다시 강원도 순찰사를 제수하며 君臣의 大儀로 격동시키니 김성규가 일개월여 동안 도내를 순찰하며 탐관오리들을 숙청하고 인민들을 고무시켰다. 그러나 당시의 權路者들의 모함으로 또 소환되자 국가가 반드시 망할 수 밖에 없는 진상을 數萬 言으로써 痛切히 아뢰고 서울에 있는 家産을 모두 철수하여 南歸하였다.<sup>19)</sup>

人之儒教 宗旨 本在於濟斯民安萬世也 …… 吾願此時出大儒者教此東洋民族而並救世界人類 又曰吾願吾子孫世世究得儒教眞理爲大儒者 ……

19)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蔭仕」 424쪽.

김성규는 자식들에게 매양 경계하여 이르기를 자신은 처세하는데 두 가지의 罪가 있었는데 智略은 짧고 뜻은 높아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스스로 좋아했던 것이 한 죄요, 성격이 급하고 度量이 얇아서 物을 용납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죄라고 하였다.<sup>20)</sup> 김성규에 관한 대부분의 평 또한 “강직하고 사직을 생각하는”<sup>21)</sup>사람이라는 데 일치되었다.

유교에 근거한 김성규의 또 하나의 신념은 孝였다. 그는 忠과 孝 두 가지가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忠으로 國恩을 報하고 義로 友恩을 報함에는 限度가 있지만, 孝와 友로써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함에 있어서는 因果가 분명하며 천지가 망극하다고 하였다. 또한 孝와 友는 百行의 根源이요 萬福의 시작이니 위로 부모와 조상에 對하여는 生前의 養志와 死後의 追慕의 孝誠을 다하고 父祖의 本意를 실천하여 兄弟와 叔姪에게 友愛를 다함이 報恩의 가장 큰 것이라고 하였다.<sup>22)</sup> 김성규의 이러한 孝의식은 자신의 가문에 대한 자부심과 가문을 지키고 번창시켜야 한다는 가문의식 때문에 더욱 공고해졌다.<sup>23)</sup> 김성규는 자신이 신라의 왕족인 金闕智의 1,799년에 이어지는 聖神의 後裔이며 신라의 宗室이자 遺臣으로, 자신의 출생 또한 범상치 않음을 자랑하였다.<sup>24)</sup> 또, 김성규는 자신이 잘못하면 그 죄과가 1,900년 동안 후손에게 흘러 갈 것이니 어찌 선조들의 공덕을

20)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7쪽: …… 家君每以戒語警不肖等曰 吾於處世有二罪 智短而志高 傲世而自好一罪也 性急而量淺不能容物二罪也 ……

21)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433쪽: ○木浦府史第一編第一章第四節第三의 七 (五十七頁第十四行의 『人夫鑑札濫設問題』中記事 譯文神藏昌平所作 昭和五年十二月三十一日發行 當時剛直하고社稷을念하난監理金星圭 433쪽, 從宦錄, 394~401쪽.

22)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三, 「草亭居士遺言書 第四號」, 236~238쪽.

23)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9쪽: …… 以神聖後裔清明正直世傳其性 ……; 380쪽: …… 新羅宗室 …… 新羅遺臣 ……

24)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2, 卷之五, 「務安郡三鄉面南岳里遺安堂開基祭祝文」, 61쪽.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6쪽: …… 吾家鼻祖諱闕智生年乙丑 (新羅脫解王九年) 至吾生年癸亥爲一千七百九十九年 ……; 340쪽: …… 其娠也我祖妣夢大雷雨霹靂天地晦冥俄而中天分開彩雲閃爍長虹下垂成橋忽有年少 仙人從天而下至橋頭停立向我祖妣鞠躬致敬誠異兆也臨婉我曾祖考寧陵叅奉公諱爽根夢 至海邊見珠玉金銀等無數珍寶自水中出來中有新造銀衡 一個星點晃朗因盡拾而歸 其後名家君以星圭字家君以寶衡從夢事也.

파괴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가문의 연대감과 유대감을 강조하였다.<sup>25)</sup> 김성규의 이러한 효의식은 조상에 대한 효와 후손을 번성케 하는 것, 친족들에 대한 끝없는 지원으로 나타났다.

김성규는 孝子로 유명하였다.<sup>26)</sup> 김성규가 병마를 이겨내고 25세에 官界에 나간 것은 가세가 빈한하여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김성규는 부친을 23세(1885년)에 여의었고 어머니인 順興 安氏를 26세(1888년)에 여의었다. 김성규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은 지극하였다. 아마 자신의 생모가 삼취처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것과 특히 자신이 외국에 나가있음으로 인해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에 대한 불효를 끝내 잊지 못하였다.

高敞縣監으로 재직하던 34세(1896년)때에 김성규는 어머니의 묘를 聞慶으로부터 長城으로 이장하였다. 김성규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어머니의 이장 행사를 모셨는데 경비는 자신이 고창현감으로 있으면서 받은 3년간의 俸金과 儀物로 충당하였다. 이장 행렬은 12월의 험한 기후를 무릅쓰고, 문경에서 고창까지 700여리의 먼 길을 말 100여 마리가 軍制의 隊伍와 같이 행진하면서 한달 여에 걸쳐 運柩하였는데, 沿路에서 보는 자들이 稱歎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sup>27)</sup> 이듬 해에 김성규는 묘소의 동쪽 東山洞에 園林 1區를 구입하여 草心亭이라는 정자를 짓고 가족들을 이주시키고 자신의 호를 草亭이라 바꿨으며 이때부터 仕宦을 영영 그만두고 守墓耕田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였다.<sup>28)</sup>

모친의 묘를 이장하고 초심정으로 가족들을 이거시킨 그 해에 김성규는 35세 되어서 첫아들 우진을 낳았으며,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자신의 포부를 실천할 수 있는 득의의 기간을 맞이하였다. 김성규는 조상을 잘 모시는

25)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6쪽: …… 吾以晩生獨子九死餘生 今有子女在前此 乃從 先世積累中生出也 今當生存競爭之世如或爲此身之快樂安閑放心縱慾遺棄人事則 吾之罪過必流於後致令 一千九百年 吾先世積累之功德爲吾所破壞也 吾何忍爲也 吾何敢爲也 ……

26)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孝行」, 「蔭仕」, 「樓亭」, 「孝子」, 421~433쪽.

27)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50쪽.

28)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52쪽.

것으로부터 복이 비롯된다고 생각하여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조상에 대한 효를 강조하였고, 돌아가신 父祖의 墓를 관리하고 가꾸는 것을 일로 삼으면서, 매양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거나 회사를 창립하는 등의 家庭事가 있으면 조상에게 고하고 아뢰었다.<sup>29)</sup>

김성규는 다섯 부인을 얻어 3남 7녀를 두었다.<sup>30)</sup> 첫 부인인 豊山 洪氏에게서 두 딸을 얻었고, 喪妻 後 順天 朴氏와 재취하여 祐鎭과 哲鎭 2남과 1녀를 얻었으며, 후일 同福 吳氏에게서 3남 益鎭을 얻었다. 또한 喪妻로 인한 再娶뿐만 아니라 蓄妾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가족관계는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질시와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었는데 김성규는 자신의 蓄妾가 喪妻로 인한 것이었으며 자손을 번창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31)</sup>

김성규가 고향인 문경을 떠나 600여리 떨어진 장성으로 流居한 이유는 자기의 재산을 스스로 自營하여 親族間 불필요한 舊習을 피하기 위해서였다.<sup>32)</sup> 그러나 김성규는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한 친족들을 불러들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김성규는 자기 곁으로 불러들인 친족들을 학교에 보내고 땅을 사서 농사를 짓게 하면서 그들의 자립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20여 년 동안 실로 거액을 쏟아 부었다. 김성규는 친족들에게 자활의 정신을 길러 주는 것이 세상 풍조에서 도태되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의지하는 습관은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수치라고 하였

29)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2 卷之五, 「草亭居士墓自誌」, 25쪽: …… 故居士口呼祖先諱字及墳墓所在使益鎭筆記如 此末端設空白幾行使日後追錄其父墓所在如左例而埋於壙前六尺之內 …… 「草心亭實紀」, 381쪽: …… 家君篤於人倫 誠於送終殫心竭財於墓地經營 亘二十餘年之久自丙申冬先祖妣墓緬葬 以後 又得各處名所今讀集中有墓山紀行詩十餘篇 家君至誠惻怛之心 崇人道盡人事之眞旨自然流露於行間此乃爲後承者感結而不能忘者也 ……

30)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2, 卷之五 「草亭居士墓自誌」, 24쪽: …… 居士賦命多險屢喪配耦 有三男七女 …… 「亡室淑夫人順天朴氏墓誌」, 15쪽: …… 居士賦命多奇凡五娶而有男三女七男二即夫人生也男一即現在淑夫人吳氏生之 ……

31)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7쪽.

32)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一, 「宗中公蹟」, 207쪽. 「草心亭實紀」, 374~375쪽.

다.<sup>33)</sup> 그러나 김성규는 가문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손가의 불손함과 폐악은 극에 달하여 선산을 마음대로 採伐하고 훼손하며, 일본인에게 팔아넘기고, 나중에는 무덤을 도굴하는 폐악까지 저질러 叔姪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소란을 거치면서 결국 자신을 創祖로 하는 草亭派를 개창하였다.<sup>34)</sup> 김성규는 신라의 金闕智 이후로 면면히 이어져 왔던 안동 김씨의 가문이 이제 草亭 金氏派로 이어져 나갈 것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김성규가 農業을 家業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35세 때 장성으로 모친의 묘를 이장하고부터였으며 그 때부터 그는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였다.<sup>35)</sup> 그러나 그는 致仕에 뜻이 없이 守墓耕田할 것을 결심한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계속 관직에 머물러야만 하였다. 김성규는 “농사는 우리들의 性命이 存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sup>36)</sup>고 생각하였으며 자신이 “상업을 경영하지 않고 농업에 힘쓰는 것은 농업이 근검함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또한 “역사적으로 사람의 가장 오래 전해지는 世業이 농업이며 또한 신라 천년과 中亞의 周邦의 立國의 根基와 政治의 要領을 궁구해 볼 때 농업으로써 국가의 근본을 삼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하물며 한 집안에 있어서일까? 이제 세계인류가 상공업으로 경쟁하는데 경쟁이 많으면 위험도 더욱 심해지므로 안전하고 걱정이 없는 일로는 농업만한 것이 없다”<sup>37)</sup>고 하였다. 김성규는 43세에 완전히 치사한 후 仕宦家의 모든 풍습을 집어

33)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一 207쪽,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4~375쪽. 「蔭仕」, 425~426쪽: …… 自建陽年間搬移其族親七家於本道各授職業教育 其子弟如是二十餘年皆至成家 每以爲吾之睦恤與俗人不同云矣 ……

34)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一, 「宗中公蹟」, 200~333쪽.

35)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50쪽: 丁酉(家君三十五歲)正月植松檜數萬本於墳墓局內又買墓田於墓下此蓋買土之始也 …… 同年冬挈全眷移住於東山洞會家族著定守墓耕田錄 自是永絕仕宦於心上焉.

36)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8쪽: …… 家君又戒不得等曰讀書耕田乃爾輩性命之所在 ……

37)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78쪽: …… 吾所以不營商近於奢 吾所務農近於儉 歷數人家之久傳世業者莫不以農爲業 且見半島之新羅千年中亞之周邦八百年稱以最長國祚而究其立國之根基 政治之要領莫不以農爲本國而如此 況一家乎 況今世界人類以商工競爭 競爭多則危險益甚所以安全無憂之業無如農矣 ……

던지고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농사에 전념하게 하였다.<sup>38)</sup>

## 2) 김성규의 근대성

김성규의 유학적 성격은 실사구시의 유학이었다.<sup>39)</sup> 그의 그러한 실학적 경향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반계 유형원의 磻溪隨錄과 다산 정약용의 與猶堂集 등의 책을 손수 베끼면서 공부하였다. 또한 그는 일찍부터 算術之學에 정통하였으며 量田均稅를 바르게 함으로 국가와 인민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有用의 學과 匡濟의 學에 전심하였다. 김성규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목하기를 “갑오이전에는 開化派의 前茅라고 하여 俗流들의 擯斥함이 많았고, 甲午以後에는 親日派로 지목하여 皇室派와 淸俄派의 화살들이 叢集하였고, 近來以來로는 排日派라고 지목하여 官界의 注目을 받고, 頑固한 老學이라고 하여 新進들이 嘲弄하는데, 자신은 한 번도 소신을 바꾼 적이 없었으며 때를 따라 矯揉함을 선비의 천직으로 삼고 忠을 다한 것 뿐이었다.”<sup>40)</sup>고 회고하였는데 이처럼 그의 학문과 처세는 俗儒들의 처세와는 거리가 먼 有用之學과 匡濟之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김성규는 致仕 후 퇴폐한 풍조를 바로잡고 후진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在野의 事業을 삼았다.<sup>41)</sup> 그리하여 장성에 사립학교인 先憂義塾을 세워

38)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74쪽: …… 乙巳春以後 一掃仕宦家舊風婦女之鋤田執爨 男子之各執役務 互相樂赴不肖與弟妹 每當冬月寒天手背莫不龜坼血流成痂 蓋因未明前洗滌內外堂室也 至於除廁掃庭點燈煖垞等事 亦與諸學生分番擔任較諸農村細民家子女勞苦 實爲倍蓰 家君每語不肖等曰爾果勞乎吾爲爾輩作將來之福 不肖等亦自不知其爲苦焉 ……

39)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53쪽: …… 家君自少濡染於家庭聞見 已有遠大之圖 遊學四方 專心於有用之學 必欲展其素志矣 ……

40)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77쪽: …… 由是而點檢往事 人之對我指目分爲四截焉 甲午以前指我爲開化派之前茅而俗流之擯斥甚多 甲午以後指我爲親日派而皇室黨淸俄派之鋒鏑叢集 自挽近以來指我爲排日派而有官界之注目 指我爲頑固之老學究而有新進之嘲評 此 非吾心有一毫變遷於前後 斷斷一念出於隨時矯揉以盡 吾爲士者之天職也 ……

41)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73쪽: …… 自是但以矯揉頹風教導後進爲在野之事業焉 ……

新·舊學 教師들을 초빙하여 親族의 子姪들과 뜻이 있는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實用의 學과 農業을 가르쳤고 매월 일정한 날에 들에 나가서 실제로 노동하였으며 자신도 친히 그들과 같이 작업하였다.<sup>42)</sup> 이외에도 김성규는 각 곳에 학교를 세우는데 성금을 내거나 지원하여 인재를 양성하는데 참여하였다.

김성규는 농업을 家業으로 삼으면서 이를 기업적 성격을 가지는 규모로 확장시켰으며 회사를 설립하여 근대적 자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사업적 수완을 토지를 중심으로 하여 발휘하였는데 개항지 목포에서 근대적 기업형 회사인 祥星合名會社를 설립하여 토지 등 부동산의 매입과 경영 및 매매, 농업, 임업, 잠업 등에 손을 대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sup>43)</sup>

### III. 김우진의 문화적 충돌과 수용

#### 1. 김우진의 생애

‘20년대 최고의 연극인인 동시에 선구적 지식인’<sup>44)</sup>으로 평가받는 김우진은 그의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치기도 전인 29세(1926년) 때 일본에서 부산으로 오는 관부연락선을 타고 돌아오던 중 현해탄에 몸을 던져 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그의 죽음이 더욱 극적이었던 것은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이자 술한 화제를 몰고 다녔던 성악가 윤심덕과의 동반자살이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의 김우진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문단에 막 얼굴을 내밀어 기대되는 젊은 유망주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당시의 많은 일본 유학생 문사들의 하나 정도로 알려졌던 인물이었다. 김우진은 死後에 더욱 유명하여졌다. 처음에는 그에 관한 화제와 소문으로 유명하였으

42)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 「草心亭實紀」, 385쪽.

43)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三, 遺言書, 定款, 228~329쪽.

44) 유민영, 『한국현대희곡사』, 흥성사, 1982, 156쪽.

나 차츰 김우진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김우진의 평범하지 않은 희곡과 시, 수필, 평론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의 생애와 주변 환경 등을 고찰하면서 김우진의 죽음이 단순한 정사가 아니라 역사적 전환기를 살아갔던 젊은 선구자의 불행한 선택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金祐鎭(1897~1926)<sup>45)</sup>은 봉건왕조인 조선왕조를 마감하고 근대적 국가인 대한제국이 탄생하던 해인 1897년 부친이 장성군수로 재직하던 長城府官舎에서 김성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우진은 김성규가 35세 때에 얻은 장남이었다. 가문의식이 투철했던 김성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父祖에게 바치는 孝와 자손의 번창이었다. 그러나 김성규의 희망과는 다르게 17세에 혼인한 初娶婦人은 2녀를 낳고 세상을 떠났으며 이어 혼인한 再娶婦人인 순천박씨도 5년여가 지나서야 장남인 우진을 낳았고 3년 뒤에 동생인 철진을 낳으면서 그의 집안은 번성하여졌다.<sup>46)</sup> 그러나 우진의 생모도 우진이 다섯 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났으며 김성규는 모두 다섯 부인에게서 3남 7녀를 두었다. 김성규는 어렵게 얻은 아들들을 강인하게 키우고자 하였다.<sup>47)</sup> 이러한 부친의 의지에 따라 김우진은 철저히 교육받으며 성장하였다. 김우진은 부친이 설립한 장성의 先憂義塾에서 수학하였다. 선우의숙의 교육과정에는 농업이 들어 있었는데 학생들은 매월 4번씩 들에 나가 노동을 하였는데 당시 9살과 6살이었던 우진과 철진도 역시 들에 나가 일하여야 하였다. 11살(1907년)때 우진은 부친을 따라 목포로 이주하여 목포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목포공립심상고등소학교 일년을 수료하였다. 18세(1914년)때 우진은 農業을 家業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동생 철진과 함께 日本의 熊本農業學校에 遊學을 가게 된다. 웅분농업학교는 일본의 명문 농업학교로 전문적인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양을 기르는 전인 교육의 도장이었다. 이 무렵의 김우진은 아버지의 기대와 뜻을

45) 김우진에 관한 자료로는 『草亭先生文集』 1-3과 서연호·홍창수편, 『김우진전집』 I-III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2000년)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46)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52쪽: …… 自其後人口漸多 ……

47)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3, 卷之十二「草心亭實紀」, 374쪽.

이뤄 드리겠다는 생각에 전혀 갈등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구의 근대적 문물에 접하면서 김우진은 차츰 자아와 개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뜻을 계승하라’는 아버지와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다.<sup>48)</sup>

김우진이 부친과 언제부터 괴리가 생기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으나 22세(1918년)때 웅본농업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으로 가서 23세(1919년)에 와세다대학 예과를 거쳐 24세(1920년)에 와세다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하여 28세(1924년)에 졸업을 한다. 농업에 전념하라는 부친의 명을 거역한 것은 김우진의 첫 번째 반역이었다.<sup>49)</sup>

김우진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15세(1911년)때부터 시를 계속하여 썼고 17세(1913년)때에는 소설 ‘空想文學’을 쓰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연극과 문학에 경도된 것은 1920년 이후부터였다. 김우진은 와세다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하던 해인 1920년, 20여명의 동경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극 연구단체인 ‘극예술협회’의 활동을 주도하면서 1921년 ‘동우회 순회연극단’을 조직하여 전국순회공연을 개최한다. 여기에서 김우진은 무대감독으로, 대본의 번역자로 활약하였고 윤심덕이 소프라노 가수로 참여하였다. 또 이때부터 김우진은 공개적인 문필활동을 시작한다.<sup>50)</sup> 그러나 이후 김우진의 활동은 중단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목포의 집으로 돌아온

48) 『김우진전집』 I, 310쪽, 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日文詩): 지금이야 각지(覺知)하였다. 사오년을 일본문(日本文)으로만 기록하여 오든 너의 일기가 이제 우리 본국문어(本國文語)로 기록됨을. 이 사롱스러운 국문으로 무의식으로 기록한 지 전일을 상(上)하여야 조사한지 삼일 전부터이다. 그에게는 아모 연유 업시 시작한 너의 국문일기가 이제 너의 의식에 올랐다. 나는 깃거한다. 나는 깃거한다 우리는 깃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스롱 하고 우리를 깃거하여야 한다. 그러는 이제 일본문 기록의 종결하는 쓰음에 너의 할 의무가 있다 ……

49) 『김우진전집』 II, 422쪽, A protesto : …… 그러기 때문에 평시(平時)에 내가 아버지 말을 거역한 일이 한 번이나 잇었니? 다만 웅본(熊本)서 문고대학으로 갈 때, 진갈이 의장(依裝) 문제를 내맘대로 ねし涌す할 때, 또 이번 내 출가(出家). 그 세 경우 외에는 나는 충실한 아들 노릇, 순한 남의 집 자제 노릇을 해 왔다 ……

50)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30~37쪽, ‘所謂 近代劇에 對하여’(1921.6. 학지광 22호)

뒤의 김우진의 행적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김우진은 1925년 5월에 목포에서 문학 동인회 ‘Societe Mai(5월회)’을 조직하면서 문학 활동을 재개한다. 문예지 ‘Societe Mai’를 발간하고<李永女>, <두더기 詩人の 幻滅>, <難破>, <山돼지> 등 4편의 희곡과 ‘李光洙流의 文學을 埋葬하라’, ‘歐美 現代劇作家(紹介)’, ‘우리 新劇運動의 첫 길’, ‘築地 小劇場에서 <人造人間>을 보고’ 등의 평론을 발표하면서 왕성한 문학에의 의욕을 보이지만 곧 이어 가출을 하고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다.

김우진의 가출이 언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략 1926년 5월 중순에서 6월 초순 사이의 일로 추정되며 잠시 서울에서 머물다가 6월 중순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김우진은 동경에서 8월 5일까지 독일어 강습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며 어학공부를 마친 9월경에는 일본을 떠나 유학을 갈 계획이었다고 한다.<sup>51)</sup> 그런데 7월 16일 레코드 취입을 위해 오사카에 왔던 윤심덕이 7월말 동경으로 김우진을 방문하였고, 이어 김우진이 8월 2일 오사카로 윤심덕을 찾아왔으며 이튿날 두 사람은 8월 3일 오후 1시에 부산으로 떠나는 德壽丸에 올랐으며 4일 새벽 현해탄의 한가운데인 대마도를 지날 때 승무원들은 두 사람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sup>52)</sup>

김우진이 남긴 작품으로는 시가 49편(일문시 9편 포함), 희곡 5편, 소설 3편, 번역 작품 2편, 논문 및 평론 18편, 한시 5수 등이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의 사후에 공개되었다.<sup>53)</sup>

## 2. 김우진의 근대성과 봉건성

### 1) 김우진의 근대성

김우진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개성이다.<sup>54)</sup> 김우진은 자신을 ‘성격에

51)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 524, 528쪽.

52)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214~326쪽.

53)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II,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2000.

뿌리박은 이 individualist'라고 말하면서 '數十 丈되는 폭포도 자기의 힘으로 뛰어 내리고, 적은 시냇물도 제가 어찌할 수 없는 힘에 몰려 흐르고, 초목도 禽獸도 微物도 다 자기의 힘으로 사는데, 사람만은 因襲과 傳統과 道德에 얽매어 있다고 하면서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영웅·천재가 아닌 사람이라도 제각기 제 멋대로 자기의 특징과 가치 만에 의하여야 살아야 한다'고 부르짖는다. 또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타파하고 내 자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며 자신이 "이 전통에 저항할 그 힘과 무기를 내가 아니 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런 모든 外部的인 것에 대한 반역의 선언을 지금 행동화하고 있다고 선언한다.

김우진은 1925년 문학 활동을 재개하면서 펴낸 문학잡지 『Societe Mai』에 게재한 '창작을 권합니다'<sup>54)</sup>에서 가식적인 소위 '문학청년'의 생활을 버리고 한마디 길가의 말소리, 한 개의 외로운 풀싹, 다만 한 사람의 외로운 말 것침 소리를 들을 때에도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통찰하고, 감(感)하고,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창작의 테마의 범위를 정할 때 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계급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자각과 고민으로부터 창작이 시작되어야 하며 ② 윤리적인 모든 가치를 전환하여 우리 생활을 변혁시키고 새 길을 인도해주는 창작을 하여야 하며 ③ 性적인 문제, 즉, 연애, 결혼, 모성과 같은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④ 인생 철학, 생명, 죽음, 신, 이상 등과 같은 테마를 다루어야 하는데, 이상과 같은 이념적인 문제들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 상대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유롭게, 철저하게, 많이 창작할 것을 독려했다.

김우진은 '사오년을 일본글로만 기록하여 오던 일기를 이제야 本國文語로 기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모국어에 대한 새로운 자각과 발견에 뿌듯해 한다.<sup>56)</sup> 또, 그는 '朝鮮 말 엮는 朝鮮文壇에 一言'<sup>57)</sup>이란 글에서 오늘날

54)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 423, 500쪽.

55)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 63~69쪽. (김초성, 『Societe Mai』, 1925.9)

56)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 445쪽.

57)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 227쪽. (김초성, 중외일보, 1922.4.14)

의 조선 문단에는 조선말이 없다고 열거하면서 순정한 조선어의 부흥과 개량을 역설하고 그 방법으로 ① 文典의 제정과 辭典의 출현 ② 구비전설과 민요·동요의 수집 ③ 외국 문학의 번역 ④ 신문·잡지의 민중화를 통하여 조선어를 부흥시키고 개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김우진의 봉건성

김우진의 사상의 근저에는 유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철저한 유학자이자 실천주의자였던 김성규에 의해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았다. 이러한 교육에 의해 김우진의 사상의 밑바닥에는 忠과 孝라는 유교의 가장 큰 덕목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터에 忠은 가치를 발휘할 필요가 없었으나 孝는 여전히 가치를 발휘하고 있었다. 더구나 천하의 孝子로 인정받는 아버지의 삶을 지켜보며 성장했던 그에게 孝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였으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또한 잘못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감히 이를 넘어 설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김우진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은 김우진이 부모에게 깍듯이 효도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였으며 자신 또한 부모에게 거역한 것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김우진은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한문 수업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이 마련된 후 아버지는 그를 새로운 세계로 유학을 보냈다. 김우진의 한문구사능력은 탁월하여 그는 농업학교 졸업반이던 22세(1918년)여름에 아버지 김성규의 일대기인 「草心亭實紀」를 한문으로 저술하였다. 김우진은 여기에서 아버지의 삶과 사상, 출사와 치사, 가문의 내력 등에 대해 소상히 기록하였으며 그가 지은 한시가 『草亭先生文集 I』에 5수 실려 있다.

## IV. 신·구 문화의 충돌과 수용 양상

지금까지 봉건적 근대인인 김성규와 근대적 봉건인인 김우진을 통해서

근대전환기의 신·구 문화의 갈등과 수용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근대적 봉건인인 김성규에게 가장 득의의 기간은 우진과 철진 형제를 일본의 웅분의 농업학교로 유학을 보낼 때부터였다. 김성규는 이들 형제들이 농업에 관한 신학문과 신기술을 습득하여 와서 가업인 농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유지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다. 또한 자기가 그때까지 쌓아올린 孝友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 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김성규는 방학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들을 이끌고 선조들의 묘소를 돌아다니면서 父祖에 대한 효의식과 가문의식을 확인하였다.

14년만에 이 배에 오르니	十四年來乘此船
할 일 다 후에 하늘의 뜻 들으리	盡人事後聽於天
너희들이 내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면	爾曹若得成吾志
돌아가 청산에 눕더라도 신선이 부럽지 않으리	歸臥青山不羨仙 <sup>58)</sup>

김성규는 자신의 자식들이 지금처럼만 성장한다면 자신이 노심초사하며 이룩하여 온 가문을 더욱 강건하게 대물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다. 김우진 또한 부친의 시에 다음과 같이 차운하여 부친의 뜻을 이루겠노라고 다짐한다.

푸른 파도 아득한데 한 점 배에 의지하니	滄波極目倚孤船
만상이 하늘의 위 아래에 가득 펼쳐져 있구나	萬象森羅上下天
소자가 명심하여 아버님 뜻을 이루리니	小子銘心成父志
일찍이 충신과 효자가 신선을 일으켰음을 들었노라	夙聞忠孝起神仙

그러나 이렇게 돈독하던 부자간의 관계가 개인의 자아와 개성을 중시하는 신문화적 가치관에 접하면서부터 김우진은 절대적이던 유교적 가치관에 회의를 느끼게 된다.

58)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一, 舟中吟示二兒 乙卯六月二十七日 又率二兒舟行向臨淄 附 祐鎮 哲鎮詩

“아버의 뜻을 계승하라”는 아버지의 말씀과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어머니 사이에서 김우진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며 “훌륭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sup>59)</sup> 20세(1916년)에 이루어진 김우진의 결혼은 구시대적 가치관에 회의를 느끼던 김우진에게 결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김우진은 부친의 친구이던 곡성 출신의 경학원 강사인 鄭鳳鉉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그 때 김우진은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결혼에 대해 크나 큰 분노와 동정심을 함께 느꼈던 것 같다.<sup>60)</sup>

웅본 농업학교를 졸업한 김우진은 처음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와세다 대학으로 진학한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자신의 개성에 따라 선택한 것이다. 이때 김우진은 한없이 자애로우면서도 고집스러운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며 허탈해 한다.<sup>61)</sup>

김우진과 아버지와의 괴리는 와세다대학 영문학과에 입학하면서부터 깊어지기 시작한다. 김우진이 자신의 생모의 기일에, 아버지가 장성에 건

59)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 310쪽. 日文詩, “아아 무엇을 얻어나”(1915년): “아버의 뜻을 계승하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신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신다./헤어보면 어언 14년/옛집 처마 밑-//아버지의 뜻은 무엇?/훌륭한 사람은 무엇?/불초한 자식은 여전히 알 길 없고//유학(游學)의 몸이 된 때가 있어/꿈은 고향으로 달려가건만,/꿈의 원천인 어머니를 위해선/어떤 꽃을 가지게 할까,/늙으신 아버지는 어디에/안식의 지분을 세워야 하나./아아, 무엇을 얻어야 하나.(詩 全文)

60) 『김우진전집』 I, 311쪽, “첫날밤”(1916): 이날 저녁에/너/흰 粉 얼굴/불 켜가며/불근 저 근 입/다물고/무엇을 生覺하느니// …… 이날 저녁 이 자리 우에/갓히 누어서/너와 나/갓 혼 술 한마음으로/千年 萬年 祝禱하나/너와 나의/生覺하는 것/갓지 안타 ……/…… 첫날밤/이 갓흔 燈불/아무리 잇슬지나/이 내 마음의 눈/밤갓히 어둡다./…… 『김우진전집』 II, 531쪽, 1926. 6.10일자 일기: 그리고 내 처자(妻子)는 가정성의 처자로만 아닛가, 엇더케든지 거기서 처치(處置)하는 대로 나는 불평이 업겟다. 다만 그이들(처자)의 생활과 교육만 어드면 고만이겟다. 지금 이만큼 내의게는 혈연과 가족의 애(愛)가 업다. 참혹하다만, 참혹하다고 해두어라마나, 이 참혹을 맞게 된 그이들을 잘 두호해 주어라.

61) 『김우진전집』 I, 307~311쪽, “아버지께”(1919): …(생략)… 엇지면 그갓히도 따뜻하게 /나의 몸을 검쳐 안으면서도/엇지면 그리도/내의 가는 燈불에 바람질 하십닛가./정상시럽게도 흰 이를/악물며/엇지나 畏怖의 춤을/그갓히 팻혀 쥬십닛가// …(생략)… 나로봇혀 나왔스되/永久히 도라오지 안는 것/맞치 해거림자를 잡으라는/헛됨을 뿐밧지 맵시오// …(생략)…

축한 陟記齋에서 쓴 일기에서 “저 건축인들 세기말부터 도피해온 과거인의 고통스런 한숨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네 건축에 아무런 자부심을 찾지 못한다. 그 초석이 매몰되지 않는 한 다만 너는 과거 사람들의 불행한 생활-인습과 전통의 살육(殺戮)을 받은 생활의 묘지의 기념비에 불과할 것이다. 부모가 무엇이냐! 효가 무엇이냐! 하물며 陟記齋가 무엇이냐!”<sup>62)</sup>라고 부르짖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때부터 김우진의 일기에서는 옛 것에서 벗어나려는 강한 의지와 내면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변해 가는 아들을 감지하며 단속하여 보낸 아버지의 절절한 편지를 세 번씩이나 거듭 읽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나, 이미 “오 가련한 인생, 구전통(舊傳統)의 유물의 신생에 대한 공포야말로 불상(不常)하다, 피육(皮肉)의 생이여. 옛것, 혼 것, 다 사근 것이 엇지 이같이 새로운 조류의 앞혜는 형해(形骸)가 업서지도록 험위(脅威)를 면치 못하는 중인가? 가가(呵呵)”<sup>63)</sup>하며 새로운 조류 앞에서 옛날의 전통이라는 유물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어리석음에 대해 냉소한다. 김우진은 아버지가 각종의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 자신과 자식들에게 강요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Rule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가운데 최악의 악마”라고 하면서 “인간의 개성은 각양각종이다. 그것이 특성이다. 이 각양각색의 개성을 하나의 rule 밑에 통어하려 함은 이 무슨 명칭하고 쓸데없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그러면서 “개성의 가치를 잘라 전정을 하려는 자 위에 저주 있으라! 얼마나 휘어진 개성이런가. 오, 내 개성은 지금 사람 가득히 비료를 주는 대신에 결코 일지일엽(一枝一葉)일지라도 인공을 가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sup>64)</sup>라고 주장한다.

김우진은 자신이 부정하는 구시대적 가치관에서 벗어나려면 힘과 용기가 있어야 함을 알았으며 투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62) 『김우진전집』 Ⅱ, 493~494쪽: 1922년 9월 24일자 일기에서 발췌.

63) 『김우진전집』 Ⅱ, 495~496쪽: 1922년 12월 3일자 일기에서 발췌.

64) 『김우진전집』 Ⅱ, 501쪽: 1923년 8월 25일(25th Aug. 1923) “무등산 증심사(證心寺)에서 발췌.

러나 오, 내게 과연 ‘힘’이 있슬가. 이 과거의 형해를 여회(餘灰)를 대항할 만한 힘이 있슬가. 나는 몸을 떨며 가슴이 내려 안는다. 오 내게 힘이 있나!”<sup>65)</sup>하면서 갈등한다. 더우기 “내겐 모든 것을 타파하고 내 자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특히 필요한 것은 부자간(父子間), 친자간(親子間)의 애정, 일종의 센티멘트의 굴레를 벗어날 힘이 필요하다.”<sup>66)</sup>고 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부자간, 친자간의 애정마저도 부인해야 할 만큼의 냉혹하고 단호한 결단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유교적 가치관으로 교육받고 훈육되어 온 김우진에게 부자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극복하는 것은 死活을 건 마지막 투쟁이었다. “아버이의 목소리—— 나는 유교(儒敎)의 지지자다. 가정이란 것이 있다. 선조(先祖)라는 것이 있다. 가족이라는 것이 있다. 너는 장남이다! ‘달효(達孝)’ 외에 장남으로서 너에게 무슨 이상(理想)이 있느냐.”라며 강력하게 밀어부치던 아버지는 이미 “우리 부자가 보통 부자에 비해 어찌 별나지 않겠는가? 내가 늘그막에 독자를 낳고 아득한 이 한 몸은 천리 먼 곳으로 떨어져 평생의 뜻을 아직 민국화(民國化)에 펼치지 못했다. 오늘 이후의 일은 너희들의 뜻이 견고한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니, 사설(邪說)에 미혹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은 졸업후에 ○○ 동양 사천년사와 동양 종교가의 학설 등을 상호 절충해서 자각 자립한 연후에야 비로소 나는 눈을 감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sup>67)</sup>라고 애원하며 매달리는 나약하고 노쇠한 늙은이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김우진은 “불상(不常)하기는 한-개인적 운명과 닷투어 승리를 얻었으나 이 시운(時運)의 불리(不利)로 ‘신(新)’의 협위를 받는 부주(父主)! 이 진통에 저항할 그 힘과 무기(無氣)를 내가 아니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주(父主)’라는 정애(情愛), 비극의 hero에 대한 ○정(\*情)을 극승(克勝)할 만한 힘”<sup>68)</sup>이 없었으며 아버지의 눈물겨운 탄원을 “더구나 이 탄원에 대한 한 가지 내 약점은 이것을 분쇄할 만한 힘이 모자란 것은 아닌가. 오,

65) 『김우진전집』 II, 495~496쪽: 1922년 12월 3일자 일기에서 발췌.

66) 『김우진전집』 II, 495~496쪽: 1922년 12월 4일자 일기에서 발췌.

67) 『김우진전집』 II, 497쪽: 1922년 12월 4일자 일기에서 발췌.

68) 『김우진전집』 II, 496쪽: 1922년 12월 3일자 일기에서 발췌.

아버지여. 당신은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이요. 당신으로 하여금 비극의 주인공을 벗어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개성과 자아를 태워버려야만 하오.”<sup>69)</sup>하면서 아버지의 애원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서의 선택에 고민하다 결국은 “가정이라는 감옥”<sup>70)</sup>에서 가출한다.

김우진의 가출 한달 여후에 김성규는 5통의 편지를 작성하여 친구들에게 보내 김우진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였다.<sup>71)</sup> 이 편지에서 김성규는 서로의 마음이 편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이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전적으로 불안한 김우진의 마음을 풀어주고 몸의 건전함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김성규는 김우진의 기질의 위약함과 신경과로를 걱정하면서 숙식이나 배상 등의 경비를 너무 아끼지 말고 사용하고 모든 경비는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하면서 찾으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아마 김성규는 김우진의 가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우진은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다시 친구에게 돌려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은 가출할 때와 다름이 없음을 통고하여 부자간의 관계를 절연할 결심을 재확인한다.

그러나 어떤 연유에선가 김우진은 자신이 원하던 유학의 길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마지막 방법으로 과거와의 단절을 이루어 낸다.

결국, “여명에 서 있는 젊은이. 낡은 전통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생활의 새벽이 마약 밝아 올 때, 숨막히고 계다가 무엇인가를 구하려 하는, 잿빛과 옅은 붉은 빛 가운데 서있는 조선의 젊은이”<sup>72)</sup>는 “가정이나 사교나 계급이나 물론 수하(誰何)하고 타협이 아니면 평화와 미소를 얻지 못하는 이 현존 제도”<sup>73)</sup>를 자신의 생명을 파열시키는 방법으로 거부한 것이다.

69) 『김우진전집』 II, 497쪽: 1922년 12월 4일자 일기에서 발췌.

70) 『김우진전집』 II, 506쪽: “In the Prison of home”

71)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 卷之四, 413쪽: 「寄祐鎮書」 丙寅六月初六日.

72) 『김우진전집』 II, 494쪽: 1922년 11월 20일자 일기에서 발췌.

73) 『김우진전집』 II, 494쪽: 1923년 7월 2일자 일기에서 발췌.

## V. 맺음말

근대전환기에 신·구문화의 충돌이 가장 첨예하게 일어났던 것은 개인의 자아와 개성을 중시하는 신문화적 가치관과 가문과 집안의 일원으로 부자간의 관계를 가장 우위에 두었던 구문화적 가치관의 충돌이다. 즉, 대의명분으로 대표되는 구시대의 인습과 전통이 개성으로 대표되는 신시대의 개인주의와 충돌한 것이다.

구시대적 인습과 관습을 형성하는 근저에는 유교가 자리잡고 있었다. 구시대적 가치관이 지향했던 孝는 수직적인 父子關係를 중심으로 하여 父祖의 뜻과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孝는 자식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구시대적 가치관은, 이념적인 문제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시대적 가치관과 정면으로 부딪치게 되며 신·구문화의 중요한 충돌의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신·구의 문화는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를 충돌하고 파괴하고 조율하고 수용하는 여러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자료

金星圭, 『草亭先生文集 1-3』, 한국역대문집총서1778-1780, 경인문화사.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전집』 I-III, 연극과인간, 2000.

#### 2. 저서 및 논문

고석규, 『근대도시 목포의 역사·공간·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김방한, 『한 언어학자의 회상』, 민음사, 1996.

- 나영균, 『일제시대, 우리 가족은』, 황소자리, 2004.
- 목포대 박물관, 「남악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내 문화유적」(학술총서 제65책), 무  
돌, 2000.
- 배종무, 『목포 개항사 연구』, 느티나무, 1994.
- 백낙청, 『문학과 예술에서의 근대성 문제』, 창작과 비평, 1993겨울호.
- 서연호, 「인습과 전통을 거부한 근대극 운동의 기수, 김우진」, 『문화와나』,  
2000, 3·4, 삼성문화재단.
-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 유민영, 『한국현대회곡사』, 흥성사, 1982.
- 이경훈 비평집. 『한국 근대 문학의 풍속사, 오빠의 탄생』, 문학과 지성사, 2004.
- 이은경, 「수산 김우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장선희, 「목포시사 연구」, 『언어문학』 제46집, 2000년 12월.
- 한국극예술학회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①」, 김우진, 태학사, 1996.
- 金容燮, 「光武量田의 思想基盤-量務監理 金星圭의 社會經濟論」, 『아세아연구』,  
통권 48호, 1972.12.

<투고일 : 2005.6.30 심사일 : 2005.7.1 심사완료일 : 2005.7.19>

K C I

## Abstract

# The Study of friction and reception between Feudalism and Modernism

- In case of Kim Sung Kyu and Kim Yu Jin in Mokpo area -

Chang, Sun-hee

This research is studied about trouble, discord, and reception between Kim Sung Kyu and Kim Yu Jin to show confliction and reception between Feudalism and Modernism.

In a turning point of modern times, a major factor of the friction was happened between Modernism pointed to individuality and ego and Feudality aimed for lineage and duty as a member of family.

The Confucianism was at the core of the Feudalism formed by convention and tradition.

The filial piety considered as major thought of the Feudalism meant absolute obey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That is to say, descendants yielded to ancestor's will like the slaves obey the owner's orders. The filial piety was an uncontrolled value in that time.

But, the Modernism says that the Feudalism is not an absolute value and must be regarded as relative value in our relative lives.

So, the visual difference between positivity and relativity of the Feudalism is a primary factor of the friction.

**Key words : Kim Sung Kyu and Kim Yu Jin, modernistic feudalism, feudalistic modernist, friction, reception**